

- 본문 : 창세기 14장 10~16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이 세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 본문 읽기

- 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 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 12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 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원편 호바까지 쫓아가
-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가 삶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마음 한 구석에서 ‘그것 참 씹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속이 시원해지고, 그 날은 하루종일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이러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세워갑시다.

· 도입질문

- * 당신이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생겨난 첫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과거 아브람과 롯이 갈림길에 섰을 때 롯의 결정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그리고 롯이 처한 상황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창14:10~12)
2. 전쟁에서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14:14, 23)
3. 육신의 시선이 아닌 ‘영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는 아브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나의 삶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나타나는 영적 전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영적전쟁이 있음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영적인 자세를 결단해 봅시다.